루마니아 선교편지

2024. 12. 20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9:6)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둡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가 많지만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길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루마니아 소식 드립니다.

♣ 기도하며 도전받는 지도자들

얼마전 교회 지도자 기도모임 가운데 이곳 브라쇼브주의 교회상황을 놓고 기도하다가 각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0년전엔 브라쇼브엔 약 3퍼센트의 개신교인 성도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 반 정도로 줄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에 관심이 사라지는 상황을 알기에 그리고 교회들에 성도수가 줄어들고 있기에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에 집중해야겠다는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자가 섬기는 교회들부터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임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섬기는 교회들에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성탄 선물을 가난한 집시교회들과 양로시설등에 나누고 있습니다. 성탄 선물을 기다리는 가난한 집시 아아들에겐 복음과 함께 선물을 받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 영적으로 강건해지길 기대하는 펠디와라 교회

펠디와라 교회는 루마니아 많은 교회들처럼 적은 수가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수적으로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있어 감사하게 됩니다. 올 해 새롭게 나온 한 남자성도

는 밤새 야근을 하고도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곧 바로 교회에 와 예배하는 모습이 귀해 보입니다. 펠디와라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왔지만, 정작 주님께 돌아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기에 많은 부담감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청소년들과 아이들, 특별히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소중한 접촉점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여 그동안 접촉이 있는 모든 아이들을 찾아 다시 교회로 초청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주일학교 사역에 인내와 기도를 쏟으며

함께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교회들에도 어린이와 청소년 전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라치 교회도 전도와 양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때론 양육이 더디고 인내해야 할 시간들이 지나기도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것을 믿으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해 계속해서 악기를 배워가고 있고, 함께 주일학교를 섬기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예전보다 주일학교 참석 인원이 적어진 것을 보며 어떻게 아이들을 세워갈 것인가가 기도제목입니다.

뜨르너베니 교회의 주일학교는 파네전도사와 요안나 사모 그리고 아디쇼르집사 부부가 매주 토요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주일학교도 약해진 부분이 있지만 열매들도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엔 복음 증거하고 다시 아이들을 모으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 헌신적인 일군들

루마니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적인 일군들이 있어 감사하게 됩니다. 펠디와라 교회의 큰 대문이 낡아 있음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에 참석하

며 농사를 짓는 성도가 와서 모든 비용과 함께 직접 대문을 제작해 설치해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엔 직접 농사지은 수백 킬로그램의 잘 보관된 감자를 싣고와 가난한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교회에 맡기고 갔습니다. 또한 브라쇼브시내에 살면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한 형제는 수년 동안 이맘때면 아픈 몸으로 건축 노동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사역등에 사용하라고 정성껏 모은 돈을 헌금으로 건네 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애써 헌신하는 모습에 귀한 도전이 되곤 합니다.

♣ 가족소식및 기도제목

막내 예진이가 올해 9월에 아일랜드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하며 열심히 학습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1. 브라쇼브지역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전도에 힘쓰며 깨어 기도하도록
2.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가 영혼구원에 더욱 힘을 쏟도록
3. 섬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4. 늘 깨어 기도하는 가정되도록

* 총회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GMS배만주)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새해 되시길 소망하며!

루마니아 배만주. 이명자(경진, 예진)선교사 드림